

비/너/스 Magazine

(제6호)



일본의 핑크리본 행사를 참관한 후

서준석 박사

2002년 10월 1일 서울 남산에서의 핑크 라이팅 점등행사를 보고 난 후의 감동이 채 식지않은 상태에서 필자는 연이어 주말의 짧은 일정(1박2일)으로 이웃 나라 일본의 핑크 라이팅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방암 환자수가 매우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보다 서구화가 먼저 된 일본은 그 발생빈도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과 사회적 의식향상 활동이 어떠한지 궁금증을 안고 출발하였다. 일정이 짧았던 관계로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대회장인 아사히 홀로 향했다. 대회가 한참 진행중인 상태에서 홀로 들어서는 순간 행사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참석 인원수가 매우 많은 것을 보고 놀란 필자는 일본의 유방암 환우회 모임인 아케보노회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었다. 1978년 10월 결성된 이 모임은 현재 회원수 약 6,000명에 일본 전역에 32개의 지부를 두고 그 어떤 다른 환자 들의 모임보다 앞서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활동은 두 달에 한번 회원들의 유방암 체험기를 비롯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다양한 내용을 소식지로 발간하고, 전국 모든 회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책자로 발간하여 회원 상호간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유도하고, 전국 각지에서 부정기적으로 유방암에 관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매년 1회 소규모로 가족동반 1박 2일의 온천 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활동중에 가장 큰 행사가 1984년 이후 매년 5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유방암 의식향상 캠페인이다. 5월의 어머니날에 일본 전국의 37개 도에서 일제히 주요 역과 거리에서 "유방암은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진 인쇄물을 배포하면서 매월 1회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매년 10월 동경타워 핑크라이팅 점등행사를 주관하고, 10월의 셋째주를 유방암 검진 주로 정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BCSS(Akebonokai breast Cancer support Service)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는 아케보노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후 각 병원에 입원 중인 유방암 환자 또는 협력병원에서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를 찾아가 체험자로서 그들의 고민과 불안감을 듣고, 이에 대답하면서 정신적 위로와 평안을 주는 활동이다. 끝으로 한쪽 가슴을 보완하는 패드, 특수 브래지어, 속옷 등을 소개하고 이들의 각종 모임장소에 직판장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싼 가격에 이들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갖게 해준다. 이러한 모든 전국적인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행사가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제 한국도 서서히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의식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이 아직 첫 걸음마 단계이나 여기에 비너스회가 적극 참여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필자의 바람은 향후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우회도 보다

활성화 되어, 유방암 환우끼리는 나눔과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다른 여성들에게는 계몽의 선구자가 되길 바람과 동시에, 이러한 일에 비너스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끝으로 행사장과 저녁 만찬장에서 환영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아케보노회 회원들의 따듯한 환대와, 핑크빛으로 물든 동경타워 아래서의 멋진 저녁식사, 짧은 여행기간을 함께 했던 서울의대 외과 노동영 교수님, 주식회사 엘카코리아의 오철숙 이사님 다수의 비너스회 회원 여러분과의 시간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다.